

교사-학생관계 및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음악흥미에 미치는 영향*

권 슬 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학생의 음악흥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심리요인(음악교사-학생관계, 부모의 음악학습관여)과 개인 심리요인(음악적 자기효능감)의 영향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 A 중학교와 B 중학교의 1, 2학년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교사-학생관계, 부모의 학습관여, 음악적 자기효능감, 음악흥미의 정도를 측정하여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생이 느끼는 교사-학생관계가 긍정적인수록 학생의 음악흥미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로 작용하여 음악흥미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한편, 학생이 느끼는 부모의 학습관여는 음악흥미 향상에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었지만, 학생의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음악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학생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음악흥미 향상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보다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학생의 음악흥미 향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 심리요인이 음악흥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요인인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음악흥미 향상을 위해 학생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주제어: 음악흥미, 자기효능감, 교사-학생관계, 부모의 학습관여, 중학생, 구조방정식 모형

차 례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음악흥미
2. 음악흥미와 관련 변인 간의 관계

III.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및 연구대상
2. 검사도구
3. 분석방법
4. 분석모형

IV. 연구결과

1. 측정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2.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3. 측정모형의 분석
4.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5. 음악흥미와 자기효능감, 교사-학생관계 및 부모의 학습관여의 영향관계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요약한 것임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협동과정 음악교육 전공

I. 서론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경험 중 음악 경험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음악이라는 교과가 지니고 있는 심미적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 음악교육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 하겠다(최혜정, 2007). 또한 이를 통하여 받는 음악의 외적인 영향력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긍정적인 음악활동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정서 순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김혜경, 2000), 자아존중감·유능감·자신감·자기개념(Hallam, 2006), 자기표현능력·자기개발능력을 발달시키고, 스트레스대처능력(Beck, Cesario, Yousefi, & Enamoto, 2000)과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시킨다(DeNora, 2000; Sloboda, O'Neill, & Ivaldi, 2001). 이와 같이 긍정적인 음악 경험은 학생의 정서와 인지 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최병철, 2006), 긍정적인 음악적 가치와 태도를 바탕으로 음악학습과 음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음악적 가치와 태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며, 음악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음악흥미가 유발되어야 하는데, 이는 음악흥미가 음악활동 중에 학생 개인이 생각하는 음악의 기능과 의미를 결정하여 음악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기(Szubertowska, 2005) 때문이다. 또한 흥미는 인간에게 동기를 심어줄 수 있는 기본적인 감정이기(Izard, 1993), 음악흥미가 향상됨에 따라 학생이 음악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음악흥미를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시기를 보낸다고 할 수 있다. 음악흥미는 다른 영역의 흥미와 달리 좀 더 이른 시기에 형성되어 청소년기에 분명해지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Allport, 1961), 중학생의 시기에 경험하는 환경 요소와 개인 요소에 근거하여 음악적 가치와 의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에서는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실시됨에 따라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기반을 둔 학습활동들이 교육과정에 다양하게 편성되어 학생들에게 제공된다(교육부, 2013). 이러한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이 제공되려면 학생들은 음악흥미를 높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음악흥미는 중요하며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 비하여 음악흥미 향상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연구의 대부분은 특정 변인이 음악흥미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만 살펴보는 실험연구이다. 한편 흥미는 개인과 환경에 의해 결정되며(Sichivitsa, 2007), 이 두

가지는 중요한 상호의존성을 지닌다(Ainley & Hidi, 2002). 즉 음악흥미 향상에 있어 개인과 환경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이 적합한 분석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과 달리 측정 오차, 측정도구의 타당도, 모형 적합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Reynolds & Walberg,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흥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요인을 환경과 개인으로 나누어 각 요인 간의 관계를 구조적 모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음악흥미를 유발시키는 환경 심리요인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음악 경험과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외부적 환경을 총칭한다(Gembris & Davidson, 2002). 이러한 환경 변인 중 음악흥미의 형성과 발달에 있어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한 변인은 부모(가정)와 교사이다(Creech & Hallam, 2003; Sandene, 199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 및 부모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 환경 변인을 ‘교사-학생관계’와 ‘부모의 학습관여’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음악흥미를 유발시키는 개인 심리요인은 학생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변인으로 흥미와 상호관련성을 지니는 자기효능감이 있다(Schunk, Pintrich, & Meece, 2008).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음악활동 영역에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적 평가 또는 믿음을 의미하며, 음악이 다른 영역에 비해 재능을 더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음악 학습 시에 중요한 개인 요소라 할 수 있다(김주은, 2012).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자신이 음악을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음악흥미의 정도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oberts, 2012; Sichivitsa,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모형을 통해 중학생이 지각하는 환경 요소인 교사-학생관계 및 부모의 학습관여와 개인 요소인 자기효능감이 음악흥미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음악흥미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학생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사와 학부모에게 학생의 음악흥미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음악흥미를 향상시키기 위한 인지적 영역의 지원활동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교사-학생관계와 부모의 학습관여는 각각 음악흥미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교사-학생관계와 부모의 학습관여는 각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음악 흥미에 어떠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자기효능감은 음악흥미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음악흥미

흥미는 어원적으로 ‘사이에 있는 것’을 의미함으로써(Dewey, 1913), ‘개인과 환경 또는 대상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윤미선 & 김성일, 2003; Hidi, 1990). 즉 교육 내에서의 흥미는 특정 영역과 학생 간의 사이로 관련지을 수 있다. 이러한 흥미는 인간에게 동기를 심어줄 수 있는 기본적인 감정으로써(Izard, 1993), 음악흥미는 음악활동의 능동적인 참여와 음악적 관여에 관한 감정을 뜻한다(Radocy & Boyle, 2003). 또한 음악흥미는 음악성(musicality)과 음악능력(musical ability)에 기초하여 음악감상과 음악활동 그리고 학습으로 인하여 음악을 수용하는 태도를 포함한다. 음악흥미의 정도는 유전적인 재능과 환경을 통한 선행경험으로 발달하는 음악 기술과 음악 성취에 따라 달라진다(Radocy & Boyle, 2003). 따라서 문화화에 의한 비의도적인 교육환경 또는 의도적인 교육환경은 음악흥미의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2. 음악흥미와 관련 변인 간의 관계

가. 교사-학생관계와 음악흥미의 관계

교사-학생관계란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적 맥락에서 중요한 사회적 관계이며 이는 학생의 학습과 활동 참여의 기초가 된다(Ryan & Powelson, 1991). 박연호(1985)는 교사-학생관계의 특징을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세대를 달리하는 질서의 관계, 둘째, 심리적 성격을 지니며 변화와 수정이 가능한 관계, 셋째, 교사와 학생 양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들 관계에 영향을 주는 학급과 학교, 지역, 국가 사회 안에서의 복수체계 관계, 넷째, 애정 결합의 관계, 다섯째, 권위와 외경(畏敬)의 관계,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관계

이다. 이와 함께 교사-학생관계는 부모-자녀관계와 달리 비영구적이고, 상호 자의에 의해 선택되어진 관계가 아닌 인위적인 관계이며 교육의 목적을 지니는 공식적인 관계이다. 이처럼 일시적인 기간 동안 우연히 맺어지는 교사-학생관계는 학생의 학습생활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인격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교사-학생관계의 특징은 음악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기능한다. 음악교사는 학생의 흥미를 향상시키는 음악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Davidson, Moore, Sloboda, & Howe, 1998), 학생은 교사를 통하여 음악의 가치 즉, 음악에 대한 중요성, 흥미, 태도와 아름다움을 경험한다(Sichivitsa, 2007). 결과적으로 좋은 교사-학생관계는 음악흥미를 높여주어 음악학습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Davidson et al., 1998).

박지현(2009)은 음악적 자기효능감 형성에 있어 음악 경험, 부모 및 교사의 기대와 지지와 가정 및 학교의 음악환경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 교사기대와 가정음악환경은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인 반면, 부모지지와 학교음악환경은 음악적 자기효능감 간에 유의한 높은 상관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한수정과 한정훈(2014)은 청소년의 교우관계, 교사관계, 자기효능감이 음악흥미와 음악성취도에 미치는 인과관계의 효과를 밝힌 결과,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음악흥미 및 성취에 간접 효과를 보임으로써 자기효능감이 음악흥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요인임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종합하면, 음악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는 학생의 음악흥미,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결정하는 매우 주요한 요인이며, 이는 학생의 자기효능감 수준을 매개로 하여 음악흥미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부모의 학습관여와 음악흥미의 관계

부모의 학습관여란 교사와의 면담이나 학내행사의 참여와 같은 직접적인 관여와 학습에 대한 이야기 및 가치관 전달, 관심, 지지와 같은 간접적인 관여를 모두 포함함으로써 자녀의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양육행동을 의미한다(Pomerantz, Grolnick, & Price, 2005). Pomerantz 외(2005)는 부모의 관여에 대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부모의 관여는 자녀가 유능감을 발달시키도록 돕는 기능을 가진다. 둘째, 부모의 관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부모의 관여는 자녀 스스로 특정한 활동을 할 때 목적의식을 가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처럼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습흥미와 동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음악학습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부모와 함께하는 연주회 방문과 음악 정보 공유, 부모의 음악적 관심 등의 가정환경은 학생의 음악흥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Sloboda & Howe, 1991; Sosniak, 1985; Szubertowska, 2005). Sloboda와 Davidson(1996)은 이러한 가정환경 요소들을 부모의 음악학습관여 개념에 포함시키고 부모의 관여는 학생의 음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유무와 자기효능감, 자신감(Sichivitsa, 2003, 2007, in press)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학생은 부모의 행동과 반응들을 근거로 자신이 얼마나 음악을 잘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정진원, 2009).

또한 개인·환경 요인과 음악적 동기 간의 관계를 모형으로 제시한 Hallam(2002)은 음악적 동기에 음악흥미를 반영하여 측정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을 자아 개념 중 하나로 보았다. 이 모형에 따르면 환경 변인 중 부모의 관여와 지지 그리고 가정의 음악환경은 음악적 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박지현(2010)이 제시한 모형에 따르면 부모의 영향력은 음악적 동기에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만 미쳤으며,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종합하면, 자녀의 음악학습에 대하여 부모가 보이는 관여 행동은 학생이 지각하는 자신감과 유능감을 증진시키고 음악흥미를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조모형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학습관여가 음악흥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있는 한편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고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만 준다는 결과가 있다. 이와 같이 부모의 학습관여와 음악흥미의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명확하지 못한 이유는 관여하는 상황과 맥락 또는 자녀의 연령과 같은 개인 특성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예측할 수 있다.

다. 자기효능감과 음악흥미의 관계

음악적 자기효능감이란 음악 수행을 위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기대이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노래 또는 연주를 할 때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의 정도를 의미한다(Gembris & Davidson, 2002). Bandura(1986)의 이론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자신감(self-belief), 자기조절 효능감(self-regulatory efficacy), 과제난이도 선호(task difficulty preference), 귀인(attribution)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것은 각각 상이한 상황에서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97).

각 요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감은 상황-특수적인 영역에서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되어, 자기가치(self-worth)에 대한 평가로 얻어지는 자존감(self-esteem)과 구분된다(Bandura, 1986, 1997, in press). 둘째, 자기조절효능감은 개인이 목표달성을 위해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조절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 또는 확신으로 정의된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표출되기 때문에, 과제난이도 선호는 자기효능감을 결정하기 위한 개념 중 하나이다(Bandura, 1993). 넷째, Silver, Mitchell과 Gist(1995)에 의하면 자기효능감과 귀인의 관계는 상관성을 지닌다. 즉 자기효능감은 결과에 대한 귀인의 차원(소재,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귀인의 차원은 자기효능감의 향상 또는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요소로 구성되는 자기효능감은 교과의 흥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적 요인이다(Marsh, Trautwein, Lüdtke, Köller, & Baumert, 2005). 왜냐하면 학생은 실패를 피하며 자기 가치를 보호하고 싶어 하는 경향을 지니기 때문에(Covington, 1984), 일반적으로 자신이 잘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활동을 하고, 이러한 과정 내에서 만족감과 즐거움을 가진다. 따라서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생은 음악활동을 하고자 하며 음악흥미를 높게 가진다(Hallam, 2002).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종합하면,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음악흥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라. 교사-학생관계 및 부모의 학습관여, 자기효능감, 음악흥미의 관계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음악흥미는 개인과 환경 요소로 유발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음악흥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속성은 크게 ① 환경에 대한 인식과 ② 자신에 대한 인식의 2가지로 구분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개인이 환경과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였는지에 대한 해석 간의 상호작용인데, 이러한 상호작용이 음악흥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ichivitsa(2007)는 비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학습에 대한 부모의 관여와 지지, 이전의 음악경험, 음악적 자아개념(능력에 대한 신념), 학문적 통합(수업에서의 음악적 성장의 기회, 연주 요구, 교사의 전문성), 사회적 통합(교사와 학생/또래 간의 상호작용의 만족), 음악의 가치(즐거움, 성장, 학습기회에 따른 음악

경험에 대한 지각), 음악적 참여의도 간의 관계를 경로분석모형을 통해 제시하였다. 그는 음악의 범위를 교내와 교외 모두 포함시켰고, 음악적 동기와 가치에 음악흥미를 반영하여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음악에 대한 부모의 관여·지지와 음악경험의 상호작용은 음악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학문적/사회적 통합을 매개로 하여 음악의 가치·흥미·동기에 영향을 미쳤다. 즉 환경 요인인 부모, 교사, 또래의 영향과 개인 요인인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은 학생의 음악흥미와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eung과 McPherson(2011)은 홍콩 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학생의 개인 요인(자기효능감, 미적 느낌, 귀인)과 환경 요인(부모, 교사, 학교, 또래, 성취경험)이 음악적 동기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환경 요인 중 부모변인은 음악학습에 대한 관여와 지지의 정도로 정의하였고, 교사변인은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의 행동과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연구결과, 학생의 음악 연주 기술에 대한 자신감, 부모의 음악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관여와 지지,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음악흥미를 증가시켰고, 이 외의 개인 및 환경 요인들도 음악흥미와 음악적 동기에 영향을 주었다.

이 외에도 Creech와 Hallam(2003)은 교사변인, 부모변인, 개인변인이 음악적 맥락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음악학습 맥락에서의 관계를 의미한 것으로, 각 변인은 학습관여, 양육방법, 태도, 가치, 역할 기대 등을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부모, 교사, 학생이 각각 지니고 있는 변인 간의 상호작용 즉, 교사-부모, 교사-학생, 부모-학생의 관계와 상호작용 내에서의 행동이 학생의 음악 성취, 음악의 즐거움, 개인적 만족감과 음악적 만족감, 자기효능감과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타인(교사, 부모)의 행동이 학생의 행동을 결정하고 학생의 행동 역시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과정은 계속적으로 순환하여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음악을 학습할 때 환경 요인과 개인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음악적 즐거움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종합하면, 음악흥미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발달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음악적 동기 또는 음악에 대한 태도·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모형을 통하여 동기요인의 하나인 음악흥미의 영향력을 예측하는 연구이며, Hallam(2002)의 지적과 같이 실제적으로 음악흥미 자체를 측정하여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비교적 적게 이루어져 왔다. 또한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간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환경 요소와 개인 요소가 각각 음악흥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환경 요소의 경우 개인 요소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즉 환경 요소인 교사-학생관계와 부모의 학습관여가 각각 음악흥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개인 요소인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예비검사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중학교 학생 87명을 대상으로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7일에 걸쳐 예비설문지를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예비검사의 결과에 대한 요인 분석(factor analysis), 상관 분석(correlation analysis), 신뢰도 분석(Cronbach's alpha)을 통해 문항을 검토 및 수정하였다.

본 검사의 자료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비확률표집에 의한 편의표집법이 사용되어 수집되었다. 본 검사는 2016년 4월 25일부터 5월 10일에 걸쳐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A 중학교와 종로구에 위치한 B 중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학생 총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학년 228명(57%), 2학년 172명(43%)이었으며, 남학생 176명(44%), 여학생 224명(56%)이었다. 현재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집중이수제로 음악수업을 받지 않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제외한 1, 2학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 검사도구

가. 교사-학생관계 검사

학생이 지각하는 음악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의 정도를 측정하는 교사-학생관계 검사는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검사의 각 문항은 학생의 음악학습에 대하여 음악선생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묻는 것으로, 5점 Likert식 척도로 제시되었다. 교사-학생관계 검사는 지은림, 백순근, 채선희와 설현수(2003)가 제작한 '교사

-학생관계척도'를 수정한 김희정(2012)의 척도를 음악교사에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검사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교사-학생관계 검사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는 .96으로 나타났다.

검사는 이해공감, 친밀감, 유능감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해공감은 교사가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의 감정과 경험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친밀감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적인 친절·온정·개방적인 의사소통의 정도를 의미한다. 유능감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사의 음악적 지식 및 능력, 교수방법에 대하여 학생이 신뢰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나. 부모의 학습관여 검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음악학습 방식을 존중하고 격려하며 학습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동과 심리적인 지원을 학생의 관점에서 측정하는 부모의 학습관여 검사는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검사의 각 문항은 학생의 음악학습에 대하여 부모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묻는 것으로, 5점 Likert식 척도로 제시되었다. 부모의 학습관여 검사는 임은미(1998)가 제작한 '부모행동검사'를 수정한 김종덕(2001)의 척도를 음악학습영역에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검사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부모의 학습관여 검사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는 .85로 나타났다.

검사의 원 척도는 걱정성과 추구, 학습방식 존중, 학업정보 제공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예비검사의 구인 타당도 검증에서 걱정성과 추구는 학업정보 제공과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고, 학습방식 존중과 낮은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본 검사는 걱정성과 추구가 제외된 학습방식 존중과 학업정보 제공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학습방식 존중은 자녀의 음악학습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선택을 허용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학업정보 제공은 자녀에게 음악학습 및 음악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조언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다. 자기효능감 검사

학생이 음악활동 및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작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는 자기효능감 검사는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검사의 각 문항은 학생이 음악 학습 및 활동을 할 때 각자의 음악능력을 얼마나 믿고 조절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5점 Likert식 척도로 제

시되었다. 자기효능감 검사는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개발하여 타당화 연구를 마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음악학습영역에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검사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자기효능감 검사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는 .88로 나타났다.

검사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자신감은 학생이 자신의 음악학습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를 의미하며, 자기조절 효능감은 개인이 음악학습 및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를 의미한다. 과제난이도 선호는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 또는 곡을 선호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표 1> 각 검사도구의 하위요인별 주요 내용

검사 도구	하위요인	예시문항	문항수
교사- 학생 관계	이해공감	음악선생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6
	친밀감	음악선생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신다.	5
	유능감	음악선생님은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신다.	4
부모의 학습 관여	학습방식 존중	부모님은 음악활동에 관한 결정을 할 때 나에게 선택권을 주신다.	5
	학업정보 제공	부모님은 방과 후 음악활동(학교 내/외의 활동 포함)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내게 알려주시곤 한다	6
음악적 자기 효능감	자신감	친구들과 같이 노래를 부를 때, 혹시 창피를 당할까봐 내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역채점 문항).	6
	자기조절 효능감	나는 음악에 대하여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5
	과제난이도 선호	음악은 무조건 쉬울수록 좋다(역채점 문항).	3
음악 흥미	개인적 흥미	음악은 나를 즐겁게 한다.	6
	상황적 흥미	음악수업 시간에 자주 즐거움을 느낀다.	8

라. 음악흥미 검사

음악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음악에 대한 즐거움, 적극적인 태도, 감정의 정도를 측정하는 음악흥미 검사는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검사의 각 문항은 학생이 학교 정규 음악수업 시간에 배우는 음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5점 Likert식 척도로 제시되었다. 음악흥미 검사는 Lin

nenbrink-Garcia 외(2010)가 제작한 학업 영역의 상황적 흥미 검사와,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Pintrich et al., 1993) 중 과제가치 척도를 기초로 Linnenbrink-Garcia 외(2010)가 제작한 개인적 흥미 검사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검사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음악흥미 검사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는 .9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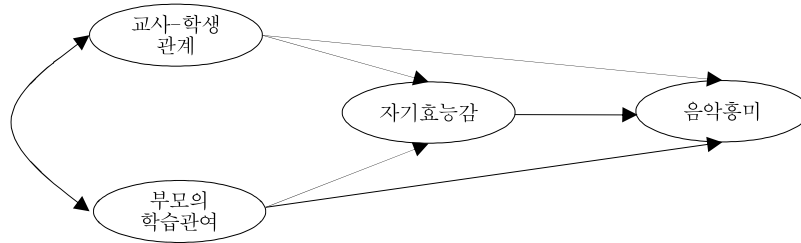
검사는 개인적 흥미, 상황적 흥미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적 흥미는 음악 및 음악활동에 대해 느끼는 비교적 지속적인 선호도를 의미하며, 상황적 흥미는 학교음악수업 또는 방과 후 음악활동의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야기되는 흥미를 의미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2.0와 AMO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각 변인의 기술통계치와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보고,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각 측정변인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 1,2,3>의 잠재변인 간 직·간접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계수는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으로 추정된 후, 연구모형에 기초하여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다음 연구모형이 실증자료를 예측하는데 있어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적합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χ^2 ,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GFI(Goodness of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의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이어서 적합한 모형을 바탕으로 측정변인 간의 유의성과 이론적 적합성을 검증하여 각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4.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교사-학생관계와 부모의 학습관여는 각각 음악흥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음악흥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1] 교사-학생관계 및 부모의 학습관여, 자기효능감, 음악흥미 간의 연구모형

IV. 연구결과

1. 측정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교사-학생관계, 부모의 학습관여, 자기효능감, 음악흥미의 각 측정변인들의 기술적 통계량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왜도 지수의 절대값이 3.0 미만, 첨도 지수의 절대값이 8.0 미만의 정상분포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표 2> 측정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측정변인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지수	C.R.	지수	C.R.
교사-학생관계								
이해공감	3.71	.75	1.00	5.00	-.00	-0.03	.04	.08
친밀감	3.79	.78	1.00	5.00	-.15	-1.20	-.14	-.60
유능감	4.07	.68	1.00	5.00	-.46	-3.77	.30	1.15
부모의 학습관여								
학습방식 존중	3.91	.81	1.00	5.00	-.57	-4.65	.04	.11
학업정보 제공	3.04	.84	1.00	5.00	.00	.02	-.25	-1.06
자기효능감								
자신감	3.33	.86	1.00	5.00	-.09	-.73	-.36	-1.51
자기조절효능감	3.27	.75	1.00	5.00	-.10	-.82	.41	1.59
과제난이도 선호	3.22	.96	1.00	5.00	-.30	-2.43	-.32	-1.35
음악흥미								
개인적 흥미	3.91	.83	1.00	5.00	-.66	-5.36	.17	.62
상황적 흥미	3.73	.77	1.13	5.00	-.11	-.87	-.38	-1.58

주) 5점 환산 평균 점수임.

2.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각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 탐색을 위하여 이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p < .01$).

<표 3>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변인	1	2	3	4	5	6	7	8	9	10
교사-학생관계										
1. 이해공감	1.00									
2. 친밀감	.83 **	1.00								
3. 유능감	.73 **	.72 **	1.00							
부모의 학습관여										
4. 학습방식 존중	.22 **	.22 **	.24 **	1.00						
5. 학업정보 제공	.21 **	.15 **	.13 **	.56 **	1.00					
자기효능감										
6. 자신감	.20 **	.19 **	.19 **	.24 **	.17 **	1.00				
7. 자기조절효능감	.34 **	.28 **	.32 **	.40 **	.38 **	.41 **	1.00			
8. 과제난이도선호	.20 **	.17 **	.17 **	.21 **	.21 **	.60 **	.52 **	1.00		
음악흥미										
9. 개인적 흥미	.34 **	.31 **	.34 **	.29 **	.25 **	.36 **	.53 **	.44 **	1.00	
10. 상황적 흥미	.53 **	.51 **	.53 **	.27 **	.28 **	.37 **	.57 **	.39 **	.72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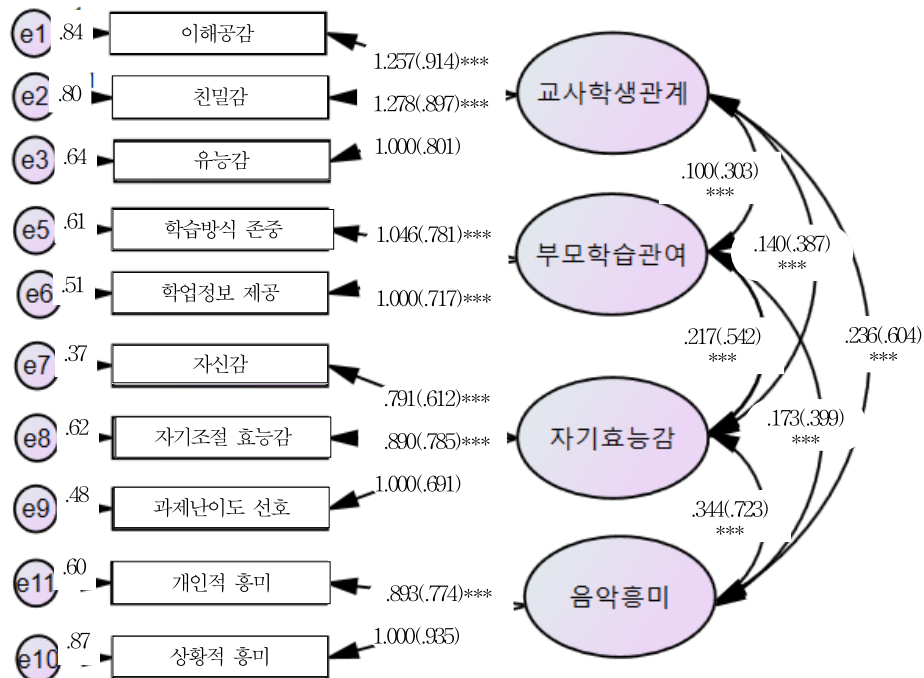
** $p < .01$

3. 측정모형의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각 잠재변인(교사-학생관계, 부모의 학습관여, 자기효능감, 음악흥미)이 연구모형에 사용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절대적합지수(SRMR .050, GFI .937), 증분적합지수(CFI .948, TLI .919, NFI .935), 간명적합지수(PNFI .602) 모두 적합한 수준을 충족시켰으며 기타지수(RMSEA .095)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연구의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변인의 타당도는 모든 측정변인의 표준화 요인적재량이 .612~.935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강한 수렴 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신뢰도는 자신감과 과제난이도 선호를 제외한 모든 측정변인이 .50이상(.514~.874)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단 자신감(.375)과 과제난이도 선호(.477)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Bandura(1986)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근거하여 자신감과 과제난이도 선호가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구조방정식 모형에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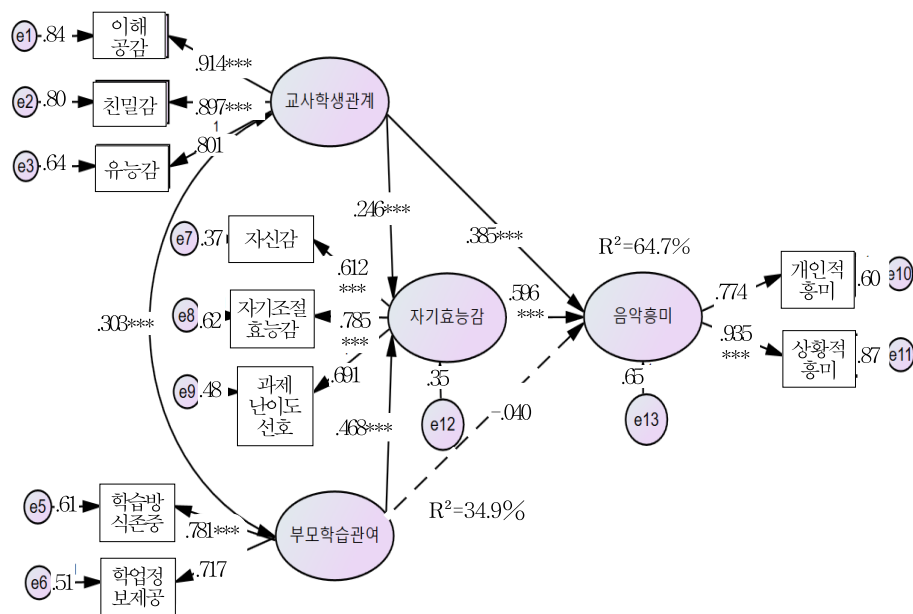
주 1) 지표변인이므로 통계적 검증이 불가

주 2) 제시된 계수는 비표준화 계수이며, 괄호 안의 계수는 표준화 값임.

*** $p < .001$

4.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이 표본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χ^2 검증은 사례 수와 다변량 정규성에 민감하기 때문에(조현철, 2003), 본 연구에서는 χ^2 값을 유의미하게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χ^2 값을 제외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절대적합지수(SRMR .050, GFI .937), 증분적합지수(CFI .948, TLI .919, NFI .935), 간명적합지수(PNFI .602) 모두 적합한 수준을 충족시켰으며 기타지수(RMSEA .095)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본 연구모형은 연구의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3] 교사-학생관계, 부모의 학습관여, 자기효능감과 음악흥미 간의 구조방정식 모형

주 1) 지표변인이므로 통계적 검증이 불가

주 2)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 값임.

*** $p < .001$

모형을 해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경로계수를 분석하였다.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음악흥미와 자기효능감, 교사-학생관계 및 부모의 학습관

여 간의 인과모형의 경로계수(β)를 분석한 결과, ‘교사-학생관계→음악흥미’는 .385, ‘교사-학생관계→자기효능감’은 .246, ‘부모의 학습관여→자기효능감’은 .468, ‘자기효능감→음악흥미’는 .596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부모의 학습관여→음악흥미’의 경우, 경로계수가 -.040이며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와 함께 설명량(R^2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교사-학생관계와 부모의 학습관여에 의해 약 34.9%, 음악흥미는 교사-학생관계, 부모의 학습관여, 자기효능감에 의해 약 64.7%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음악흥미와 자기효능감, 교사-학생관계 및 부모의 학습관여의 영향관계

각 잠재변인들의 영향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교사-학생관계가 음악흥미에 미치는 직접효과(.385),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147), 총효과(.531)는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직접효과가 간접효과에 비해 음악흥미에 높은 영향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한편 부모의 학습관여가 음악흥미에 미치는 직접효과(-.040)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279)와 총효과(.233)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부모의 학습관여가 음악흥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음악흥미에 미치는 직접효과(.596)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교사-학생관계→음악흥미’와 ‘부모의 학습관여→음악흥미’의 총효과를 비교한 결과, 교사-학생관계가 음악흥미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모의 학습관여가 미치는 영향력보다 유의수준 .001에서 두 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표 4> 교사-학생관계, 부모의 학습관여, 자기효능감, 음악흥미 간의 구조모형의 효과분해

결과변인	원인변인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음악흥미	교사-학생관계	.531***	.385***	.147***
	부모의 학습관여	.233**	-.040	.279***
	자기효능감	.596***	.596***	
음악적 자기효능감	교사-학생관계	.246***	.246***	
	부모의 학습관여	.468***	.468***	

*** $p < .001$, ** $p < .01$ (표준화계수)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음악에 대한 흥미와 학생이 느끼는 자기효능감, 음악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및 음악학습에 대한 부모의 관여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음악흥미 변인 자체가 아닌, 음악적 동기 또는 음악에 대한 태도·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조모형을 통하여 음악흥미의 영향력을 예측하였다면(Hallam, 2002), 본 연구는 음악흥미 변인을 직접 측정하여 영향관계를 살펴본 것은 물론, 개인과 환경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음악흥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와 함께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 개인의 사고 및 행동의 변화에 따른 실제적인 교육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반영한 주요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학생관계는 음악흥미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며, 자기효능감 수준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의 관계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음악에 대한 흥미를 높게 가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이 음악적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높게 가질 경우에도 음악에 대한 흥미를 높게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생이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 따뜻함, 친밀감, 이해공감, 존중감, 유능감, 헌신 등을 느끼면, 학습에 대한 즐거움과 가치를 느끼게 되고 흥미를 높게 가진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며(Deci & Flaste, 1995), 학생이 교사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면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의 음악흥미를 높인다는 선행연구(박지현, 2009; Murdock & Miller, 2003)와 일치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음악교사와의 관계성은 학생의 학습흥미와 동기유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재검증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음악교사와의 관계성과 음악흥미 간의 관계에서 학생 개인의 자기효능감 요소를 고려하는 간접적인 효과와 고려하지 않는 직접적인 효과 간의 차이이다. 학생이 가지는 자기효능감의 수준과 상관없이 교사와의 관계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 음악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는 직접 효과는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음악흥미가 높아지는 간접효과에 비해 보다 강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는 학생의 자기효능감 향상보다 학생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더 주안점을 두어 지도하는 것이 음악

흥미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과 교사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교사는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음악적 자질을 끊임없이 연마하여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의 학습관여는 음악흥미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음악학습에 얼마나 관여하는가 자체만으로는 음악에 대한 자녀의 흥미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지만, 부모가 자녀의 음악학습에 관여를 하는 상황에서 자녀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어떠한지에 따라 음악에 대한 흥미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음악학습에 관여하면 자녀의 음악흥미가 향상된다고 밝힌 선행연구(Sloboda & Howe, 1991; Szubertowska, 2005)와 달리, 부모가 자녀의 음악학습에 많이 관여하여도 자녀의 음악흥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다. 즉 가정 관련 요인이 자녀의 음악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지만,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제시한 선행연구(박지현, 2008, 2010, in press; Sichivitsa, 2003, 2007, in press)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주은(2012)의 연구결과를 비추어 볼 때, 부모의 음악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거나 또는 청소년들이 가정보다 방송매체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부모의 관여가 지니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결과라 볼 수 있다.

한편 부모의 학습관여를 통해 자녀의 음악흥미를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자녀 개인이 가지는 음악적 능력에 대한 판단 즉,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하여 부모는 평소에 자녀가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높게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즉 자녀가 보이는 음악에 대한 호기심과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녀의 음악활동을 적절하게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자녀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음악흥미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음악능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음악에 대한 흥미를 높게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가진 학생은 음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음악에 대한 흥미를 높게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Hallam, 2002; Roberts, 2012)와 일치하며, 음악에 대한 자기개념이 높을수록 음악에 대한 가치와 흥미를 높게 가진다는 결과(Sichivitsa, 2007)를 지지한다. 이것

은 음악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 개인이 가지는 음악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음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즉 학생은 음악학습에 대한 성취감을 많이 경험하고 주변으로부터 음악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적절하게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사회문화기관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음악활동을 경험하면서 음악에 대한 자신감을 지니도록 성취경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음악교육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음악이론, 독보법을 쉽게 학습하도록 교사 또는 강사를 위한 음악지도방법을 계속적으로 연구하여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각각의 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이 부모와의 상호작용보다 학생의 음악흥미 향상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음악흥미의 형성과 발달에 있어 부모가 미치는 영향력이 교사보다 크다는 Hallam(2006, 2011)의 견해와 상반되지만,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대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교사 또는 또래와 함께하는 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가 학생의 음악흥미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교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학생의 음악흥미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며, 특히 이는 부모가 음악학습에 대한 관여를 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부모의 학습관여 변인은 음악학습에 대한 관여이므로 일반적인 학습관여의 개념적 특징과 상이하다. 더욱이 한국의 음악교육 상황을 고려할 때, 음악교육은 타 교과와 다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반영한 부모의 학습관여 도구가 앞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환경 및 개인 변인과 음악흥미 간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구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환경 변인, 개인 변인 이외의 다른 환경 변인과 개인 변인을 추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서울시의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전국 규모의 확률적 표집에 의한 자료가 수집된다면 우리나라 중학생의 음악흥미를 형성시키는 요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의 범위를 초등학생, 고등학생의 다른 학교급으로 확대하여, 이 연구결과와 어떤 유사점 혹은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후속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3. 5. 28).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안. <http://www.moe.go.kr/web/100012/ko/board/view.do?bbsId=316&boardSeq=47981>. 검색일 : 2014. 12. 20.
- 김아영 & 박인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 연구** 39(2), 31-42.
- 김종덕 (2001). 부모의 학습관여형태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은 (2012). 초·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의 음악 교과에 대한 인식 및 음악교육 관여에 관한 실태조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 (2000). TV방송음악이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음악과 민족**, 19, 244-266.
- 김희정 (2012). 교사-학생관계 및 학습동기와 학습몰입간의 구조적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연호 (1985). **教師와 人間關係論(교사와 인간관계론)**. 서울: 법문사.
- 박지현 (2008). 음악적 동기유발 과정 이해. **낭만음악**, 21(1), 139-160.
- 박지현 (2009). 음악적 자기효능감 형성에 있어 음악경험, 교사기대, 부모지지 및 음악환경의 역할 분석. **음악교육공학** (8), 153-167.
- 박지현 (2010). 초·중학생의 인지적·환경적 변인들과 '음악교과에 대한 학습동기'간의 인과모형 탐색.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미선, 김성일 (2003). 중, 고생의 교과흥미 구성요인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교육심리학회지**, 17(3), 271-290.
- 임은미 (1998). 학업동기 및 부모행동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진원 (2009). 음악학습에 있어서의 동기의 중요성과 관련요소에 대한 이해. **예술교육연구**, 7(1), 77-92.
- 조현철 (2003). **(3일만에 끝낼 수 있는) 구조방정식모델: SIMPLIS & AMOS**. 서울: 석정.
- 지은림, 백순근, 채선희, 설현수 (2003). 교사-학생 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평가연구**, 16, 25-42.
- 최병철 (2006). **음악치료학 (2판)**. 서울: 학지사.
- 최혜정 (2007). 중학교 음악교육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수정, 한경훈 (2014). 청소년의 음악문화활동, 교우 및 교사관계, 자아효능감이 음악교과 흥미와 성취에 미치는 효과. **음악교육연구**, 43(4), 211-238.

- Ainley, M., & Hidi, S. (2002). Dynamic measures for studying interest and learning. In P. R. Pintrich & M. L. Maehr (Eds.), *Advances in motivation and achievement: Vol. 12. New directions in measures and methods*. (pp. 43-76). Amsterdam : JAI Press.
- Allpo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148.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W. H. Freeman and Company.
- Beck, R. J., Cesario, T. C., Yousefi, A., & Enamoto, H. (2000). Choral singing, performance perception, and immune system changes in salivary immunoglobulin A and cortisol. *Music Perception: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18(1), 87-106.
- Covington, M. V. (1984). The self-worth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Findings and implications.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85(1), 5-20.
- Creech, A., & Hallam, S. (2003). Parent - teacher - pupil interactions in instrumental music tuition: a literature review. *British Journal of Music Education*, 20(1), 29-44.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
- Davidson, J. W., Moore, D. G., Sloboda, J. A., & Howe, M. J. (1998). Characteristics of music teachers and the progress of young instrumentalist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6(1), 141-160.
- Deci, E. L., & Flaste, R. (1995). *Why we do what we do: The dynamics of personal autonomy*. New York: Putnam's Sons.
- DeNora, T. (2000). *Music in everyday lif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wey, J. (1913). *Interest and effort in edu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 Gembris, H., & Davidson, J. W. (2002). Environmental influences. In R. Parncutt &

- G. McPherson (Eds.), *The science and psychology of music performance: Creative strategies for teaching and learning*. (pp. 17-3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llam, S. (2002). Musical motivation: Towards a model synthesising the research. *Music Education Research*, 4(2), 225-244.
- Hallam, S. (2006). *Music psychology in education*. London: Institute of Education·University of London.
- Hallam, S. (2011). Music education: The role of affect. In P. N. Juslin & J. Sloboda (Eds.), *Handbook of music and emotion: Theory, research, applications*. Oxford·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idi, S. (1990). Interest and its contribution as a mental resource for learning.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0(4), 549-571.
- Izard, C. E. (1993). Four systems for emotion activation: cognitive and noncognitive processes. *Psychological review*, 100(1), 68-90.
- Leung, B. W., & McPherson, G. E. (2011). Case studies of factors affecting the motivation of musical high achievers to learn music in Hong Kong. *Music Education Research*, 13(1), 69-91.
- Linnenbrink-Garcia, L., Durik, A. M., Conley, A. M., Barron, K. E., Tauer, J. M., Karabenick, S. A., & Harackiewicz, J. M. (2010). Measuring situational interest in academic domain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70(4), 647-671.
- Marsh, H. W., Trautwein, U., Lüdtke, O., Köller, O., & Baumert, J. (2005). Academic self concept, interest, grades, and standardized test scores: Reciprocal effects models of causal ordering. *Child development*, 76(2), 397-416.
- Murdock, T. B., & Miller, A. (2003). Teachers as sources of middle school students' motivational identity: Variable-centered and person-centered analytic approaches.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103(4), 383-399.
- Pintrich, P. R., Smith, D. A., García, T., & McKeachie, W. J. (1993). Reliability and predictive validity of the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3(3), 801-813.
- Pomerantz, E. M., Grolnick, W. S., & Price, C. E. (2005). The role of parents in how children approach achievement: A dynamic process perspective. In C.

- S. Dweck & A. J. Elliot (Eds.), *Handbook of competence and motivation*. (pp. 259-278). New York, London: Guilford Press.
- Radocy, R. E., & Boyle, J. D. (2003).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usical behavior* (4th ed.).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 Reynolds, A. J., & Walberg, H. J. (1991). A structural model of science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1), 97-107.
- Roberts, J. C. (2012). *Situational Interest of Fourth Grade Children in Music at School*. Unpublished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Washington, Washington.
- Ryan, R. M., & Powelson, C. L. (1991). Autonomy and relatedness as fundamental to motivation and education.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60(1), 49-66.
- Sandene, B. A. (1997). *An investigation of variables related to student motivation in instrumental music*. Unpublished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Michigan, Michigan.
- Schiefele, U. (1991). Interest, learning, and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26(3-4), 299-323.
- Schunk, D. H., Pintrich, P. R., & Meece, J. (2008). *Motivation in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3rd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Merrill Prentice Hall.
- Sichivitsa, V. O. (2003). College choir members' motivation to persist in music: Application of the Tinto model.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1(4), 330-341.
- Sichivitsa, V. O. (2007). The influences of parents, teachers, peers and other factors on students' motivation in music. *Research Studies in Music Education*, 29(1), 55-68.
- Silver, W. S., Mitchell, T. R., & Gist, M. E. (1995). Responses to successful and unsuccessful performance: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and attribution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2(3), 286-299.
- Sloboda, J. A. & Davidson, J. (1996). The young performing musician. In I. Deliège & J. A. Sloboda (Eds.), *Musical beginnings: Origins and development of musical competence*. (pp. 171-19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loboda, J. A., & Howe, M. J. (1991). Biographical precursors of musical

- excellence: An interview study. *Psychology of music*, 19(1), 3-21.
- Sloboda, J. A., O'Neill, S. A., & Ivaldi, A. (2001). Functions of music in everyday life: An exploratory study using the Experience Sampling Method. *Musicae scientiae*, 5(1), 9-32.
- Sosniak, L. A. (1985). A long-term commitment to learning. In B. S. Bloom & L. A. Sosniak (Eds.), *Developing talent in young people*. (pp. 477-506). NY: Ballantine Books.
- Szubertowska, E. (2005). Education and the music culture of Polish adolescents. *Psychology of Music*, 33(3), 317-330.

ABSTRACT

The Effect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nd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on Music Interest through Musical Self-efficacy

Seul-Gi K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psychological factors(teacher-student relationship,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and personal-psychological factor(musical self-efficacy) affecting music interest of middle school students.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hich is based on interest theory and some empirical studies on music interest.

The participants of this survey were 400 students from two middle schools. A survey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measure variables of this study. It consists of teacher-student relationship,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musical self-efficacy, and musical interest scale.

The results suggested that Teacher-student relationship has direct effects on music interest. and also has indirect effects on music interest mediated by musical self-efficacy. However,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has no direct effects but indirect effects on music interest mediated by musical self-efficacy. At last, musical self-efficacy has direct effects on music interest. The results propose that teacher influences are much stronger than parental influences on music interest. Furthermore, musical self-efficacy is an important psychological factor in speculating about music interest.

Key words: music interest, musical self-efficacy, teacher-student relationship,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middle school studen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투고일: 2016년 08월 24일, 심사(수정): 10월 17일(11월 07일), 게재확정일: 11월 07일